



강북신문

“문턱낮고 즐기는 주민센터 되길”

■수유1동 주민센터·수유문화정보센터 개청식 인사말 주요내용

▲박겸수 강북구청장-“동민들의 집이 준공돼 부럽기 한이 없다.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주민들이 만남과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청사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갖길 바라고, 구청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초심의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행정서비스를 다해 나가겠다.”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4대 김현주 의원과 5대 우종오 의원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청사 건립을 위해 애써왔다. 동단위 주민이 있음으로 해서 구라는 집합단체가 존재하는 것. 강북구에서 제일 훌륭한 동청사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양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북갑)-“훌륭한 청사가 건립됐지만 청사 주변이 더 많은 발전을 이뤄야 한다. 빨래골도로의 조기착공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구청장과 함께 여야 구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명섭 위원장(민노당 강북갑지역위원회)-“문턱 낮은 주민센터, 편하게

안기고 즐길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길 바란다.”

▲김정중 시의원(민주당 강북2)-“멋진 청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와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위해 애쓰겠다.”



수유문화정보센터 개청식에서 주요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희 구의원, 정양석 국회의원, 박겸수 구청장, 김용욱 부의장, 유근성 의장



구본승 강북구의회가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제정 주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선구매 실현과 구청 의지가 관건'

구본승 구의원 주치로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구본승 강북구의회와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가 주최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제정 주민간담회'가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강북구의회 1층 정책연구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북구내 8개 사회적기업(노동부인증 4개, 서울형 4개) 중 6개 기업과 유관 단체 2곳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친 구본승 구의원은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시급하기에 조례제정에 나섰다"며 취지를 말하고 "조례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민관 협력 속에 시행규칙 제정과 세부 사업마련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조례 제정의 시급함에 공감했으며 민관 협력 속에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 사업이 마련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구청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구청의 의지가 관건임에 공감하였다.

조례제정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조례제정 공감, 우선구매 실현과 구청장 의지가 관건 확인

구본승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일 강북구의회 1층 정책연구실에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북구내 8개 사회적기업(노동부인증 4개, 서울형 4개)중 6개 기업과 유관 단체 2곳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본승 구의원은 발의에 앞서 일선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시급하기에 조례제정에 나섰다"며 취지를 말했고 '조례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민-관 협력 속에 시행규칙

제정과 세부 사업마련을 이뤄내자'며 이후 과제를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 공감하였으며 민관 협력 속에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 사업이 마련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구청차원,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강북구청장의 의지가 관건임에 공감하였다. 이후 구본승 구의원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가다듬어 8월 26일, 144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조례 심의 방청을 진행하고 제정 후 시행 규칙안을 마련하여 민-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승 구의원이 간담회 진행을 하고 있다.

"생계형차량 주차단속 기준 지키길"

박문수 의원, 1회 15분간 주차허용 방침따라 단속 추진 강조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민주당 강북리)이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 방법에 대해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생계형 차량의 대상과 단속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질문을 통해 제출된 답변에 따라 이같이 요구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강북구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생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특정시간대에는 15분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1회 15분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속에 나서 이같이 1회 계도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강북구가 밝힌 생계형 차량의 경우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으로서 1.5톤이하 화물자동차로 택배차량이나 6인승 풀밴 사업용차량도



포함된다. 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으로서 영업용택시나 관광버스, 공공버스 등이 해당되며 영업용택시는 비상등 점멸 택시에 한해 10분간 단속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기준이 있음에도 1차 유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문수 의원은 "생계형차량의 경우 대부분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에 납품을 하는 차량이나 화물을 옮겨주는 차량들이 잠시 주정차를 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이 실시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단속기준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요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2008년도 의정비 인상분 환수소송에 항소

서울시 10개구 유사한 재판진행 같은 결과 나와 모두 2심까지 가 구본승 민노당 강북구의원, 항소이유서 접수되면 항의할 뜻 밝혀

민주노동당의 구본승 강북구의원을 비롯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2008년도 강북구의원 의정비가 부당하게 인상됐으며 인상분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 승소함에 대해 피고 입장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항소했다.

강북구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상고제기 이유로서 도봉구와 금천구도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같은 결론이 났고, 모두 서울 행정법원 11부 관할사건으로 동일 재판부에서 나온 결론인 것을 고려하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아직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이상 1심 판결의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속단할 수 없고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한 소송이 서울시 25개 구 중 10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1심 판결이 난 곳은 강북구와 같은 결론이 내려져 도봉구·서대문구·양천구·성동구·금천구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성북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동작구는 지난 7월 5일 항소했다. 그 밖에 은평구와 강서구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의정비 인상이 월정수당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를 위



▲지난 7월 29일 오전 강북구청 앞에서 2008년도 구의원 의정비 인상분 환수와 강북구청장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민노당 당원들

반한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임이 명백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5대 강북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은 개인별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월 337만9천160원의 비율에 의한 월정수당 중 이 사건 구조에 정해진 163만7천원의 비율에 의한 월정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인 총 1천567만9천440원 (3,379,160원-1,637,000원x9개월)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것이라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노당은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

고 지난 달 29일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청장은 5대 강북구의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해간 2억여 원의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장실에 항소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었다(동북일보 2010년 8월2일자 보도).

강북구청장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구본승 강북구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가 전달되는 대로 박겸수 구청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항의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강북구, 추경 154억 편성 의회 제출

취약계층 복지 문화 기반구축 집중 투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취약 계층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억원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은 지난해 보조금 집행 잔액 등 2009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 재원을 활용 편성한 것으로 구는 취약계층 지원, 주민안전,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문화·교육·보육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호와 저소득층 저활사업 지원에 1억4,5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4,500만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

지증진에 2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내에 부족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돌봄리·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어느곳에서나 편하게 도서관을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센터(도서관)와 동·세마을 문교를 통합한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4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삼각산동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3억원, 419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비 7억7,100만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비 2억1,000만원, 친환경 급식·식자재비 지원 7,600만원 등을 반영했다.

김윤미기자 <kym601@jeonmae.co.kr>